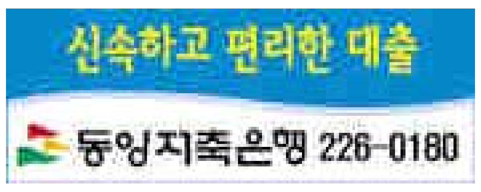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90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14일 (음력 10월 5일) 수요일

광주 공군비행장 이설 '시동'

국방부 연내 타당성 조사

이용섭 건교 "광주~무안 고속도로 내년 5월 개통"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연내 발주키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읽혀진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서울 세종클럽에서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진 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비, 국방부에서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연내에 발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용역에서는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이 타당한지, 이전할 경우 어느 지역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도 "건교부 장관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도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가 공군을 통해 이전 타당성 용역을 조만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 "무안공항을 서남권 국제 관문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무안~후쿠오카 전세기를 올해 안에 띄우기로 했으며 내년 1월 13일 이후에도 무안~후쿠오카 아시아나 전세기가 주 5회 왕복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은 무안~방콕 전세기 노선을 연내에 개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광주시민의 무안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당초 내년 6월 완전 개통 예정인 광주~무안 고속도로 공사를 1개월 이상 앞당겨 늦어도 5월께는 완전 개통토록 할 예정이며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개통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KTX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내에 발주하는 한편, 기존 호남선 철도 노선도 무안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나주~무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한이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에도 공항 이용 승객에 한해 통행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대만에서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노선 중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서는 제주 대신 무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광주의 수출 화물도 무안공항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항공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매주 회의를 갖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몸과 마음의 벽 넘은 한마당

13일 오후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화합종목인 '공 굴리기'를 하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5개구에서 게이트볼, 수영, 볼링 등 14종목, 1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당–민주 통합 난관 봉착

오충일 대표 "당대당 통합 등 조건 재논의"

민주 "재협상 불가…후속작업 마무리해야"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에 대한 재논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통합신당과 민주당간 정당통합과 후보단일화를 골자로 한 '원샷 통합'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 조건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양 당의 통합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높다.

〈관련기사 3면〉

오충일 대통합신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4인 회동 결과를 통합의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통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통합협상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또한, "양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위가 구성돼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의결기구의 50 대 50 비율 구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합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12일 양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이 합의한 통합 조건에 대한 추인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민주당과의 '1 대 1 당 대 당 통합'과 내년 6월 전당대회 개최 등 협상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합당 선언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양당의 실질적인 통합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조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연대 서명한 것을 뒤집는 정당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반문하며 "조속히 '4인 공동선언'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에 빠진 지역의원들…

F1·서남권특별법 등 지역 현안 국회 통과 불투명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23일)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남권개발특별법,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등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선과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지역 현안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발전의 최대 현안인 서남권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남권특별법이 건교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23일 폐회되기 때문에 제 정당간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국회 문화관광위 예산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F1대회 지원 예산 40억원이 반영되면서 F1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은 경주역사도시특별법과 F1특별법의 연계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또 다른 의원들도 F1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지역 의원들의 유연한 협상력과 함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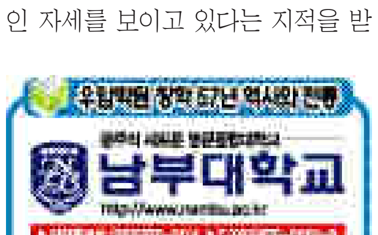
문광위는 오는 15일과 16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데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F1특별법 등의 법사위 회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과기부 등 정부 부처가 긍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서남해안포럼은 1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서남권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서남해안포럼 관계자들은 14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등유·LPG만 특소세 30% 인하

휘발유 등 일괄 인하 무산

12월 1일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가 현행 대비 30% 인하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의 인하는 일단 무산됐다. 〈관련기사 11면〉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12월~2월)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분할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社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신춘문예의 역사를 이끌어 온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어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수성과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한국문학에 새 지평을 열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단편소설·시·동화…12월 15일 마감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15일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3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光州日報社